사 설

광신만행 단죄해야

그동안 다른 종교, 특히 일부 기독교도의 광신적 행태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와 손실은 췌언(贅言)을 요하지 않는다. 사찰에 불을 지르고 탱화를 찢으며 석불이 붉은 십자 형상으로 환칠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한적한 시골이나 깊은 산사에서는 크고 작은 훼불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달은 그 중 극악한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제주 원명선원에서 본존불이 내동댕이 쳐 지고 수백개의 불상이 목이 잘리는 횡액을 당했다. 탁자와 경전들이 마구 찢겨 나뒹굴어 그 끔찍한 현장은 육도의 아수라를 연상시켰다.

일을 저지른 범인은 한 젊은 청년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사찰에 찾아와 고성으로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부처는 하나님의 제자이니, 절간을 교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등의 광신적 작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번에도 그들인가. 전통의 다른 종교들은 대체로 유연하고 관용적인데 오직 그 종교만이 그토록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결국 파괴적인가. 물론 그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상호이해와 대화를 적극 모색하는 열린 인물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기독교계가 종교다원주의적 경향을 체화(體化)시키기는 요원해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밖에서의 구원이라는 테제를 수긍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 그런 주장을 했던 급진적 신학교수 한 사람이 보수적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직책을 떠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한다.

불교는 이 유일신적 고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절대에는 얼굴이 없다. 신성은 표지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늘 미끄럽다. 신의 얼굴을 묻는 학인에게 유마는 침묵으로 대답했고, 조주는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권했다.

이런 진리관에서 볼 때 모든 교리와 관념은 궁극적으로 방편일 뿐이다. 초월을 향한 부정적 접근방식의 이런 자유함을 기독교는 아무래도 공유하기 힘들다. 그 금지된 영역을 기웃거린 사람들, 가령 사막의 수도사들이나 에크하르트, 니콜라스같은 신비주의자들은 이단으로 핍박받거나 화형장의 재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불교계는 훼불의 범죄에 대해 온건하게 대처해온 편이다.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에 대해 너무 안이한 기대를 건 탓인지도 모른다. 일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계에 자제를 요청하고 과격한 신도들을 교화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공권력뿐이다. 진작부터 이런 문제는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기보다 공공의 질서와 법률의 테두리에서 접근했어야 했다. 기독교도든 누구든 사찰의 재물을 손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응분의 사회적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것은 타자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 이는 종교적 교리가 사회적 규범에 종속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인 공권력의 태도는 모호한 데가 있었다. 방화와 훼불을 저지른 범법자들을 자주 정신질환이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방면해왔던 것이다. 명백한 범법을 공권력이 종교의 이름 아래 보호하는 것은 민주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집권자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특정한 종교를 옹호하거나, 혹은 민감한 문제인 탓에 적절한 조치와 단안을 유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줄 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권력은 종교적 편향을 넘어서 엄격한 법집행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잇단 훼불…"정부 대책 세워라"

18일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 소집
8월8일 종교편향 방지촉구 대법회

제주 원명선원 훼불과 구청장 취임식 성경 선서, 해병대 군종사병 서울역 선교행위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훼불 및 종교편향에 대해 교계가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혜, 송강스님)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책위은 성명서에서 일련의 훼불과 종교편향에 대해 "종교를 가장한 반종교적 행위이며, 사회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국민과 종교간의 화합을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하고 18일 가칭 '국민정부 종교편향 척결을 위한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특정종교편향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회의 개최와 관련, 송강스님은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각 종단, 신행단체 대표자들의 참석을 이끌어내겠으며, 8월 8일 훼불 및 종교편향의 근본적 방지를 촉구하는 대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은 이에 앞서 8일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서울역앞 선교활동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부대장을 비롯한 지휘관의 징계와 완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계종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여연)도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종회 사회분과위·총무원 집행부·종교편향대책위의 3대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를 결성했다.

공동조사위는 법안 원행 진관스님 등 사회분과위원과 능관덕운 영배스님 등 총무원집행부, 종교편향대책위 원혜 송강스님 등 8인의 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교편향대책위는 국민화합을 깨뜨리는 훼불과 종교편향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엄중수사-재발방지 촉구"

제주 호법대책위 성명

제주불교총연합회 호법대책위원회(위원장 도종·월라사 주지)는 '원명선원 훼불사건'과 관련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중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호법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특정종교을 신봉하는 광신도의 왜곡된 종교관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검찰의 엄정수사 △왜곡보도 언론 각성 △해당 행정기관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또 성경에 손 얹고 구청장 취임선서

민선구청장이 잇따라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공복이 될 것을 다짐하는 취임선서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송파구청장에 이어 강북구청장도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한 것.

강북구 장정식구청장은 1일 취임식때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자"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장 구청장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한 것은 개인적인 양심에 대한 표현이다"며 "타종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서울역앞 선교행위 해군본부 진상조사

해병대 개신교군종사병들의 서울역앞 선교행위〈본지 181호〉와 관련, 국방부가 3일 해군본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군종실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개신교 군종사병들의 서울역앞 선교행위와 관련 40여명의 병력이 이동하면서 지휘관 통제가 없었던 점과 교육참가 이외의 선교활동을 한데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 기자

2000년부터 종무행정 '온라인'

조계종, 전국사찰 전산네크워크 내년말 마무리

2000년부터 조계종의 모든 사찰이 전산네트워크를 통한 통일된 종무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조계종은 8일 지방종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설계와 중앙종무기관 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을 이현데이타시스템사와 체결했다. 이에따라 이현데이타시스템은 올 하반기 동안 사찰 업무를 분석, 종무행정 표준화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시범사찰을 통한 테스트를 거쳐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에 보급되고 중앙종무기관의 전산망에 연결시키게 될 경우 조계종 전국 사찰을 연결하는 종합 전산 네트워크 구축작업은 완료된다. 조계종은 내년 연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 아래 종무직 종사자 교육등 부대업무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중이다.

조계종은 현재 각 사찰이 사용하고 있는 종무행정 프로그램이 상호 호환성이 없고 업무 양식의 통일성이 결여됨으로 업무의 표준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전국적인 전산네트워크 구축도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통일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전산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중앙종무기관과 각 교구본사, 말사의 종무행정 양식이 표준화 되고 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된다.

조계종은 전국 전산망 구축에 앞서 기존의 중앙종무기관 종무행정 프로그램의 기능 확장을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도 9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업그래이드 작업은 밀레니엄 버그 발생을 차단하고 각 프로그램들간 상호 연결성과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10월 28~30일 북경서 한중일불교교류위 회의

한중일불교우호교류연락위원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는 4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간사회의를 갖고 연락위원회의 개최와 위원 구성, 금년도 중점사업 등을 논의했다. 3국 간사들은 회의에서 연락위원회는 각국 불교대표자 7명 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각국 단장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 부회장급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간사회의는 또 금년 가을에 3국 불교대표의 쌍방 초청, 3국 불교의 대표적 경전을 3국어로 번역한 자료집의 발간, 회에 걸친 교류대회 자료집의 3국어 합본집 발간, 환경보호 식수사업 전개 등에대한 원칙적인 합의도 도출했다.

또 3국 불자들과 국민에게 북한 식량지원을 위해 호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간사회의에는 한국에서 홍파스님(관음종총무원장), 능관스님(조계종사회부장), 자월스님(종단협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다까하시(橋本聖圓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회이사) 고도오(後藤忠男 〃) 오니이시(大西眞興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의회사무국장) 중국에서 신재부(申在夫 중국불교협회부비서장) 장립(張琳 〃) 장택서(張澤西 중국불교협회변공실부주임)등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산중총회법 개정 8월4일 공청회

교구본사 주지 선거의 존폐를 논의하는 산중총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8월4일 오전 10시부터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6일 종법제개정특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공청회 일정을 정했다. 종회는 주제발표자 4명과 토론자 6명을 선정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관련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올 상반기에 선거를 치른 교구본사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사주지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관람료사찰 25일까지 재정감사

조계종 총무원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에대한 재정감사에 들어갔다.

총무원 감사국은 7일부터 25일까지 교구본사를 제외한 관람료징수사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연관람료수익 5억이상의 사찰들에 대해 서면 감사와 실사 감사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관람료 사찰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사찰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임연태 기자

'법장스님 명예훼손' 청룡스님 공개사과

지난 4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신상 및 종무집행과 관련한 내용의 괴문서를 유포했던 청룡스님이 최근 "사실확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데 대해 법장스님과 수덕사 대중에 공개사과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쑥스럽죠?

공 개 토 론 회

21C 승가상 정립과 강원의 위상과 역할

모시는 말씀

영원한 광명이신 부처님께 일심으로 귀의합니다.
이 땅에서 유수한 세월동안 시대정신으로 자리해 온
우리 불교는 이제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전환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녹음 짙은 성하의 계절 속에 문화의 세기로 대변되는
21세기의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방의 어른스님, 학인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7월 24일(금)10 ~ 오후5시
· 장소 : 서울 동국대 예술극장
· 후원 : 전국 교직자 협의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최 : 전국전통강원연합
· 문의 : 0599) 31-1016, 011) 229-4439

주 제 21C 의 승가상 정립과 그 속에서의 강원의 위상과 역할
사 회 자 효림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 실천승가회 의장)
기조발제 진옥 스님 - 21C의 승가의 위상과 역할
명법 스님(운문사 강원)-수행자 배출에 있어서의 강원의 실상과 개선점
지운 스님(송광사 강주)-21C승가상 정립을 위한 강원의 위상과 역할
송위지 교수(외국어대 철학과 교수)-재가입장에서의 21C의 승가상 정립
토 론 자 혜능 스님(파계사율원)
도오 스님(통도사강원)
정융정 거사(옥수사회복지관, 전 대불청 사무종장)
이은윤 기자(중앙일보 전문위원)

전·국·전·통·강·원·연·합